

# '모범형사' 장승조 "뜨거운사랑 감사..강력2팀 다시 만나길"

### 극 중 럭셔리 엘리트 형사 '오지혁' 역 맡아

### "척 하고 싶지 않았고 멋 부리고 싶지 않았다"

### 지승현 "여운 주는 작품 되길... '성장' 메시지"

### 오정세 "사회가 잘못을 피하지않는 용기갖길"

배우 장승조가 JTBC 월화드라마 '모범형사'를 종영하며 "강력 2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다들 그리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장승조는 26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를 통해 밝힌 일문일답에서 "지난 추운 겨울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열정을 다해 만들었던 작품인데 무더운 여름 뜨거운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그 작품의 한 인물로 서있음에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승조는 극 중 끈질기게 수사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럭셔리 엘리트 형사 '오지혁' 역을 맡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드러내지 않는다'였다. '척'하고 싶지 않았고 멋 부리고 싶지 않았다"며 "오지혁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어떤 것들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잘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인물로 보였으면 했다"고 말했다.

극이 전개되면서 오지혁의 숨겨진 사연이 드러나고 변화된 모습도 보였다.

장승조는 "매번 인물을 만날 때마다 그 인물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숨겨져 있는 이면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다"며 "오지

혁은 그 안에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액션신도 주목을 받았다. 장승조는 "감독님께서 항상 '장르를 합시다? 액션이 너무 많지?'라고 할 때마다 '너무 재미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해보고 싶은 장르"라고 말했다.

이어 "박홍두(신재위)를 잡는 신에서 너무 많이 뛰어서 집에 갈 때 다리가 풀렸는데, '체력이 이거 밖에 안 되나' 스스로 충격받았다"며 "그날 이후 스쿼트를 거의 매일 하면서 체력을 키웠고, 또 다른 장면을 찍을 때 그전보다 훨씬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손현주와의 호흡엔 고개를 끄덕였다.

장승조는 "촬영 초반에 '편한대로 하라'는 그 말 한마디의 힘이 끝까지 갔다"며 "'사랑하는 스즈~'라며 격려해주고 다 받아주셔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다. 많이 깨닫고 느끼는 배우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현주~ 손현주~'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장승조는 "항상 작품을 한다는 건 용기이자 도전이고 두려움인데 '모범형사'를 통해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나아가길

는 큰 용기가 됐다. 좋은 선배님들, 동료분들과 함께 강력2팀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 두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극 중 정한일보 사회부장 '유정석' 역을 맡은 지승현도 소속사 바를정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종영소감을 전했다.

지승현은 "유정석을 떠나보내는 게 아픈 건 많이 아쉽지만, 조만간 더 좋은 연기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며 "'모범형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랜 시간 여운을 주는 작품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극 초반 정의로워보였던 '유정석'은 후반에 돌입하며 5년 전 살인의 진실이 드러났다.

지승현은 "유정석은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강해지고 독해져야만 했다. 집요하게 찾아낸 조성기에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오종태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까지 포기할 정도로 냉정하고 독한 사람이 됐다"며 "그래서 더 안쓰럽고 슬픈 인물인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유정석이 어떤 인물인지 최대한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쁜지 착한지 알 수 없게 초반에는 최대한 감정 표현을 자제했다"며 "후반부 유정석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격렬한 감정 변화보다 그 안에서 혼자 고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유정석의 명장면으로는 '나는 살인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직접 써내려간 신을 꼽았다.

지승현은 "본인 손으로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까지 기자로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기자정신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모범형사'의 메시지는 '성장'이라고 했다. 지승현은 "형사와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나 끊임없이 실수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또 그 과정을 발판삼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우리 사회의 모범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다"고 밝혔다.

## 이경규·이효리·김구라 등 내달 '카카오TV' 뜬다

### 카카오 M의 오리지널 디지털 드라마·예능 콘텐츠를 대거 첫 공개



이경규, 이효리, 김구라, 김희철, 지수, 아이돌 박지훈 등 쟁쟁한 스타들이 카카오 TV로 몰려온다.

카카오엔은 다음달 1일 새로워진 카카오 TV를 통해 카카오M의 오리지널 디지털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대거 첫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드라마부터 마스코트 서바이벌, 모닝 예능쇼 리얼리티까지 각 콘텐츠들의 첫 회를 동시에 공개, 각양각색의 재미와 매력으로 사로잡을 계획이다.

'아만자', '연애혁명' 등 디지털 드라마 두 작품과 '찐경규', '내 꿈은 라이언', '카카오TV 모닝', '페이스아이디', '아름다운 남자 시벨롬(si bel homme)' 등 5개의 디지털 예능 콘텐츠가 대기하고 있다. 모두 각 회별 10~20분 내외로 구성된 콘

텐츠로 일부 예능 콘텐츠는 모바일 시청 환경을 고려해 세로형 콘텐츠로 제작, 공개된다.

말기암을 선고받은 27세 최준생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배우 지수 주연의 휴먼 판타지 '아만자', 박지훈과 이루비, '더보이즈' 영훈 등이 주연을 맡아 10대들의 꿈과 사랑, 우정을 그리는 신개념 개그 로맨스 '연애혁명' 등 색깔이 다른 두 드라마가 카카오TV 런칭작으로 첫 선을 보인다.

이경규의 첫 디지털 도전을 함께 하는 모르모드PD의 파란만장 티키타카를 담은 '찐경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아이콘 이효리의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되는 모바일 스크린 리얼리티 '페이스아이디'는 물론, 세계 최초 마스코트 사관학교에 입학한 휴

수저 마스코트들의 서바이벌이 펼쳐지는 '내 꿈은 라이언', 한때 잘나갔던 모델들의 뒤늦은 성장통을 담은 청춘 시트콤 '아름다운 남자 시벨롬(si bel homme)' 등 디지털 예능 라인업도 갖췄다.

월화수목금요일별 코너로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는 국내 최초 모닝 디지털 예능쇼 '카카오TV 모닝'은 1일 화요일 코너인 작사가 김이나의 '톡이나 할까?'를 선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노홍철의 실전 재테크쇼 '개미는 오늘도 푼푼', 목요일에는 비와이와 함께하는 신개념 영어스터디 'YO! 너두!', 금요일에는 유희열의 감성 힐링코너 '밤을 걷는 밤', 월요일에는 김구라가 호스트를 맡은 특급 뉴스 킬리버리 예능 '뉴팡!'이 요일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카카오TV의 '카카오TV채널'과 #렘(샵렘)에 새롭게 추가된 '#카카오TV'에서 무료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신종수 카카오엔 디지털콘텐츠 본부장은 "9월1일 새로워진 카카오TV에서 첫 공개되는 7개 콘텐츠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양한 드라마, 예능 콘텐츠를 추가로 론칭하며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재미를 전할 것"이라며 "새로워진 카카오TV를 통해 공개되는 카카오M의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바일 콘텐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슈퍼엠 신곡 '호랑이'... '슈퍼원' 2번째곡

### 내달 1일 오후 1시 공개 예정



SM엔터테인먼트의 연합그룹 '슈퍼엠(SuperM)'이 신곡 '호랑이'(Tiger Inside)로 첫 정규 앨범 프로젝트 '슈퍼원(Super One)' 알리기를 이어간다.

26일 SM에 따르면, 슈퍼엠의 신곡 '호랑이'는 내달 1일 오후 1시 플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 뮤직, 쿠거우뮤직, 쿠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호랑이'는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신시사이저와 디스토션된 강렬한 808베이스로 동양적인 테마를 독특하게 풀어낸 댄스곡이다.

SM은 "'호랑이'는 슈퍼엠의 첫 정규 앨범 프로젝트 '슈퍼원'이 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Super) 존재로서 각자(One)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된(One)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의 연장선"이라며 "'모두에게 숨겨진 내면의 야수성을 이끌어내어 당당한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내자'는 내용을 가사에 녹여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호랑이의 움직임에 형상화해 한층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안무는 슈퍼엠의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에너지와도 앙상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SuperM은 앞서 발표한 싱글 '헌드레드'(100)에 이어 두번째 싱글 '호랑이'까지 공개하며, 내달 25일 발매되는 첫 정규 앨범 '슈퍼 원'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정우성·이정재, 공동명의 '330억' 빌딩 매입

### 청담동 구정로데오역 인근 건물

정우성과 이정재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청담동 빌딩을 330억원에 매입했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월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지하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330억원에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정우성과 이정재는 각각 약 53억원가량을 부담하고, 223억원은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탕사에서 영화, 드라마 제작 등 사업 영역을 확장, 다각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두 사람이 2016년 공동 설립한 소속사다.

한편 두 사람은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로 '태양은 없다' 이후 21년 만에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다. 내년 크랭크인 예정이다.

## 김호중, 논란에도 팬카페 회원수 상승..7만명 돌파



가수 김호중의 팬카페 회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5일 오후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회원 수 7만 명을 넘어섰다.

팬카페 '트바로티'는 지난 6월 10일 개설, 개설된 지 약 2개월 만에 급격히 회원 수가 늘면서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김호중의 팬카페는 최근 5일간 5000명 이상이 가입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제민을 위해

총 5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김호중은 다음달 초 공개되는 총 열다섯 트랙이 담긴 첫 정규앨범을 통해 다사다난한 인생 스토리를 음악으로 표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최근 불법도박 및 친모의 '미스터 트롯' 출연진 합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김호중은 불법 도박에 대해 일부 인정 및 사과하면서 허위·추측성 기사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